

육계분과위원회 운영방안

계열사와 농가간의 협의점 도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

지난 한 해는 우리 양계인에게는 큰 희망을 갖고 출발한 한 해였다. 새로운 회장단 출범으로 협회의 활성화와 여러 가지 현안에 적극적인 대처로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양계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 한 해였으나 4월에 고병원성 AI의 발병으로 양계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몰렸고, 국제 곡물가격의 인상과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특히 계열회사의 경영 악화로 위탁사육 농가는 고통분담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한번의 상처를 입어야 했다. 다행히 AI가 진정되면서 북 경기 이후 양계업계가 안정을 찾으며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는 형편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의 문제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이고 올 한 해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AI 문제, 자조금 문제, 대 계열사 문제, 대 정부 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우리 산업 속에 뒤섞여 갈등과 문제점을 만들어 왔다. 특히 계열화 사업문제는 20여 년 동안 계열주체와 위탁농가간의 갈등이 쌓여왔고 관리 감독의 소홀로 생산 농가의 위치가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 자조금 문제 역시 계열사의 무관심 내지는 방해로 작년 10월 전국 양계인 대회에서 계열사를 배제하고 생산농가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결의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육계산업의 생산비중이 계열화 사업으로 집중되어 90% 선을 넘어서는 현재, 생산자의 역할이 축소되어 필요한 정책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형편이 우리 육계산업의 현 주소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육계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은



이 흥 재

육계분과위원장/호산농장 대표



누구나 알고 있다.

2009년 한 해는 우리 육계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과제를 짚어보고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육계산업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계열화 사업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계열화 사업이 20여 년 동안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아래 급속한 성장을 이뤄오면서 육계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유통부문의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큰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성장에 비해 품질이나 안전성문제, 생산 기반의 안정화 등에는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외형적 성장을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생산 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는 사실이다. 경영의 합리화나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 보다는 농가의 사육비를 인하하고 생산원가의 손실을 농가에 전가시켜 손쉽게 위기를 넘겨왔다. 그동안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회사의 형편을 설명할만한 대화의 기회가 적었던 것도 이런 문제를 악화시켜 왔다. 현재 계

열회사의 점유율이 90%대로 증가된 상황에서 생산 농가와 계열사의 갈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달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 농가는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고, 계열사는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려 농가를 더 통제하다보니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는 고사하고 적대적 관계로 변해버렸다. 협회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하기보다는 방관자적 태도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계열사와 농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육계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해결방법 또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려는 인내가 필요하다. 각 계열사 별로 농가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열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생산 농가의 생산원, 부자재는 완전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계열사에서 생산 원자재인 사료와 병아리는 100% 공급하지만 부자재인 유류, 약품, 깔짚 등 기타 부자재는 턱없이 부족하고 전기료, 계근비 등은 공급 내역에서 빠져있다. 상호 신뢰회복의 차원에서 생산원가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다양한 정책개발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 양계분야의 정책이 타 축종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특히 방역과 환경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양돈이나 한우 낙농의 경우 다양한 백신의 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으로 연결한다. 우리

의 경우 ND백신 지원이 고작이다. 감보로와 IB 등 소모성 질병의 백신 지원과 양계전용 소독약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계분 처리문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양돈의 경우 자가 처리장과 공공처리장 설치 등 발 빠른 대처로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우리 양계분야도 환경 문제로 이슈화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슬기로우음을 가져야 한다. 지역 브랜드 육성 사업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생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축산물의 고급화, 안정성확보 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 육계의 지역브랜드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의 농·축협과 연계한 영농조합 형태의 브랜드 경영체는 수평계열화 사업의 기초단위로서 육계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조금 사업 역시 2009년에는 정상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조금의 효과는 한우나 양돈의 자조금 사업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특히 축산물 중 육계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육계의무자조금의 효과는 타 축종보다 훨씬 클 것이고 그 성과는 우리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계열회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자조금을 반대하고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지만 자조금 사업은 생산자가 산업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동안 우리 생산 농가들이 계열화업체의 역할에 밀려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육계산업의 주인이 아닌 방관자 형편에 있었으나 이제는 육계 산업의 주인으로 당당히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터지는 AI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선제 방역 체계를 완벽

하게 구축하여 단발성 발생으로 막아내야만 소비의 위축과 대규모 살처분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생산농가들의 방역 수준이 완벽하다는 사실이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장 스스로 방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협회 또한 AI가 재난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질병인 만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대안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여 소비자와 생산 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의 사소한 어려움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과 불합리한 기준 등으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새해부터는 FTA대책과 친환경 축산 지원 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자금이 지원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회원 농가가 소외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말에서야 정부에서도 육계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농가들도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협회의 회장단과 임원진, 그리고 직원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줘서 협회가 살아 움직이는 활기찬 회원의 대변자가 되고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해 무자년은 소띠해이다. 한걸음 한걸음 황소걸음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회원들이 육계산업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전국의 양계인 여러분 무자년 새해 파이팅 합시다! **양계**